

순천정원박람회 '물위의 정원' 개장, 박람회 인기 잇는다

5가지 테마...세계 3대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작품 설치

동천변 출렁다리~동천교 사이 수상공간, 무료 정원 개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주차 100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물위의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은)는 전날 야간 개장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물위의 정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물위의 정원 개장식은 노관규 이사장, 정병희 순천시의회위원장, 최병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지켜봤다. 노 이사장은 "우리 힘으로 우리 정서에 맞게

만든 정원, 유럽 선진국에 못지않은 완성도 높은 정원을 보여주었기에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 달성이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7개월을 끌고 가야 하는 박람회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물위의 정원'의 일부를 디자인한 세계 3대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의 축하 영상 메시지도 전해졌다. 야간 조명 점등과 함께 테이프 컷팅으로 '물위의 정원'은 모습을 드러내며 관람객의 축하 속에서 개장 세리머니가 이뤄졌다.

'물위의 정원'은 이상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 일상을 침범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정원 녹지를 육상에서 물 위로 확장 시켜 수상 정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위의 정원'은 오전그린광장 옆 동천변 출렁다리~동천교 사이 수상 공간에 조성돼 있다. ▲생태 정원 ▲메타 정원 ▲치유정원 ▲지속가능한정원 ▲공동체정원,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가능한정원은 '카림 라시드'의 작품이 설치돼 국내외 관람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곳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 정원으로 개방된다.

주간 전시연출뿐만 아니라 해가 진 뒤에는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 동천을 따라 수면 위로 표현되는 야간경관은 순천의 밤을 아름답게 물



물위에 또 다른 매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2023 시민과의 대화' 실시

내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2개 읍면동 순차적 진행

광양시는 지역민의 여론과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12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로 일반주민,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지역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정성과 및 운영 방향 보고, 읍면동 현안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100분가량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낮시간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저소득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현장을 시 공식 유튜브(광양시청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대화 직후에는 읍면동별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별도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든 소통의 시작은 주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김 주산지 고흥서 '제12회 김의 날 행사' 열린다

고흥군은 이달 27일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16개 시·군 김 생산사업인, 수출업체, 관계 기관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김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의 날' 행사는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로 매년 음력 1월 15일을 '김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그 시기가 김 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가장 바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4월 27일로 결정해 추진하게 됐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김생산자연합회 고흥지회와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고흥지회가 주관하는 '김의 날' 기념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김 생산사업인,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한마당 잔치로 풍성하게 열린다.

이날 행사는 김 소비 촉진을 위한 '고흥 김 쿠팡쇼'를 시작으로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김의 날 퍼포먼스, 인기가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전국 으뜸김 탑10' 전시, 대한민국 김 시장 및 기자재 전시회,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장터도 함께 펼쳐진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행사로 김 주산지의 명성을 다지고, 고흥 명품 김의 품질 고집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김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동취재본부

여수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화장치' 지원

경운기·트랙터 115대...농업인 재산·생명 보호

여수시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에 대해 등화장치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경운기와 트랙터는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등화장치가 없어 야간운행 시 차량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워 사고발생률이 높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부착대상 115대를 확정하고 등화장치 부착비용 34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은 신규 부착을 원칙으로 신제품 교체,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교체는 부착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등화장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을 인정한 제품으로 야간 운행 시 차량운전자가 전방 250m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저속차량 표시등은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LED램프로 전구교환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보성군민의 날 네이밍데이 개최

보성세계차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 김철우 보성군수는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 대 한화이글스 프로야구 경기에서 안정된 시구를 해 관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시구는 4월 29일부터 열리는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의 성공 기원과 녹차수도 보성을 홍보하기 위해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보성군민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구 장면은 스포츠전문채널인 SBS 스포츠플러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구를 마친 김철우 보성군수는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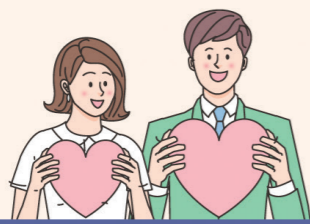
보성군은 이날 시구 행사 외에도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홍보물 및 보성녹차, 티백 우전 등의 기념품 배부, 전광판에 보

성세계차엑스포 홍보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보성군은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4월 29일부터 9일간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불꽃축제, 일립산 철쭉 행사, 벌교갯벌 레저벨베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보성군민의 날 등 다양한 축제와 부대행사를 구성해 보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약 20여분 간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는 '두시 탈출 킬투쇼' 사전 녹화, 최정삼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 공연이 마련돼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